

인류의 꿈

‘질병없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질병 없고 건강한 삶”은 인류의 꿈이며 간절한 염원이다. 이 원대한 꿈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수많은 인류의 노력이 있어 왔으며, 그것이 지금의 바이오혁명을 가져 오게 하였다.

21C에 접어들면서 바이오산업이 인류의 오랜 염원인 무병장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인류의 소망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질병없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주술이나 굿과 같은 의식과 민간요법이 성행하였으며 고대 이집트에서는 성직자들의 의술행위 등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중세에 이르러 그리스의 보건의료 전통과 과학적인 지식 등이 종교의 절대적인 지배하에 놓이게 되므로써 의료가기술이 자취를 감추는 등 의학의 암흑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다가 문예부흥이후, 산업과 함께 과학이 발달되므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의료 발전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근대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환경오염 등으로 여러가지 질병이 발생되었으며, 새로운 신약의 개발 등 질병치료에 대한 활발한 연구는 바이오테크의 혁명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최근의 질병과 관련된 주요통계를 살펴보면 소아기 질병인 백일해, 소아마비, 디프테리아, 홍역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5천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노령인구의 30%가 중풍에 시달리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WHO, 2002)는 밝히고 있다.

특히, 1981년 에이즈가 발견된 이후, 2001년 현재까지 세계의 에이즈 환자는 7,800여만명이고, 이 중 3,200여만명이 사망을 했고, 한국에서 태어나는 아기 1000명중 10명이 5살 이전에 사망한다고 2001년 국립보건원은 발표한 바 있다.

인류의 역사는 이와 같은 질병과의 싸움의 연속이었으며, 질병의 수



정원식
오송 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장
(전)국무총리
(전)대한적십자 총재

도 새로운 신약의 개발과 의술의 발전과 함께 증가되어 왔다.

오늘날엔 바이오산업의 놀라운 발전으로



난치병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까지 점차 가능해 지고 있다. 또한, 유전자 배열의 이상을 발견하고, 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거나 이상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대체하는 바이오 의약은 질병없는 미래의 삶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약의 개발 등 바이오산업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의 생활습관과 섭생을 조절하지 않고는 무병장수의 꿈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한 삶을 위한 무병장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건강십훈을 소개하며 이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少怒多笑(소노다소) 화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고, 크게 웃어라,
 少繁多眠(소번다면) 고민은 하지 말거나 적게 하고 많이 자라,
 少欲多施(소욕다시) 욕심은 버리거나 적게 내고 많이 베풀라,
 少言多行(소언다행) 말은 될 수 있는 한 적게 하고 많이 활동하라,
 少衣多浴(소의다욕) 옷을 적게 입고 자주 목욕하라,
 少食多靜(소식다정) 음식을 적게 먹고 많이 명상하라,
 少肉多菜(소육다채) 고기는 적당하게 먹고 야채는 많이 먹어라,
 少糖多果(소당다과) 단 것은 적게 먹고 과일은 많이 먹어라,
 少鹽多淡(소염다담) 짠 음식은 적게 담백한 음식은 많이 먹어라,
 少乘多步(소승다보) 차를 적게 타고 많이 걸어라. ㉚